

##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시 번역을 중심으로

원 영 희  
(성균관대)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 Robert Frost

### 1. 번역의 양극과 갈등

수많은 번역서가 서가에 꽂혀 있는데도 번역의 가능성, 불가능성을 논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을 하면 할수록 번역은 영원히 인간이 해야 하는 작업이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기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만은 없는 작업이라는 과정의 관점에서 불가능성을 호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만 진다. 번역은 세세한 부분일수록 더욱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공예품과 같다. 에릭 야콥슨이 『번역: 전통공예』에서 “번역은 로마의 발명품”이라 했듯이 번역은 그 역사가 유구하며, 또 영원히 사람이 해야 하는 전통 수공예 작업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결코 쉽지 않은 글쓰기 작업이다. 정복된 후 사장되었던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가 로

마 번역가들에 의해 침묵을 깨고 로마인들에게 웅변을 하기 시작하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듯이, 번역에는 희생력이 있으며 번역가는 죽은 원문에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주체이다. 고금동서의 불멸의 고전이 오늘 우리들의 고전이 되기까지 그 이면엔 언제나 번역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해야 하는 모든 작업에는 어느 정도의 불가능성이 잠재한다. 번역은 인간이 하는 작업이라 문제가 없을 수 없다. 특히 원작의 인물이 독특하면 할수록 번역은 불가능해 보이고,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의 말처럼 원문의 난이도와 ‘정전성’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번역불가능성은 두드러져(55), 번역가를 어쩔 수 없는 번역불가능성의 늪에 빠뜨린다. 번역불가능성 연구는 전문번역가 양성 교육 패러다임 구축에서부터 실제 언어학적 문화적 담론의 주요 주제이며, 많은 이론가와 이론가이자 번역가, 혹은 작가이자 번역가 등이 논의해온 주제이다. 특히 1940~50년대 번역학계는 “번역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주도적인 담론이 되기도 했다. 번역에서 과연 두 언어사이의 문화적 언어적 상이성을 “완벽하게” 혹은 “어느 정도라도”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극단의 두 가지 응답이 나오기도 했다.

한쪽 극단의 대표적인 분석철학자 퀴네(Williard V. O. Quine)는 서양 번역가들이 원주민들의 작품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의미적, 구문적, 내면적인 면에서 “과격환 번역”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번역에 대한 철학적 회의론을 제기했다(94). 나보코브(Vladimir Nabokov)도 문학번역은 어차피 불가능하므로 슬레이허마허의 외국화 번역 전략을 취해 번역해야하며 엄청난 주석을 다는 한이 있어도 원문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번역방법을 제시한다(83). 한편 성경번역학자 유진 나이더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원문에 충실한 형식등가 번역은 불가능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용등가”에 초점을 맞춘 번역을 해야 한다고 다른 극단의 번역방법으로 제시한다(127). 그러나 나이더의 번역방법은 나보코브에게 번역의 “해악”일뿐이었다.

이 두 극단의 갈등이 일반 번역가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역설적이다. 바로 이들의 번역이론과 전략상의 갈등은 번역불가능성을 극복하는 대안이 되며 전문성을 익히고 분야에 정통하도록 교육해 번역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한 역설적 해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적으로 시 번역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이 논문은, 번역가

능성을 불가능성으로 접근해 우회적으로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번역불가능성의 위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원문 내용과 주변에 산재한다. 우선, 번역불가능성을 주장한 번역가들이 제기한 문제의 요점을 정리하며 번역과정과 번역환경과 조건상의 난제들을 분류, 정리한다. 이 작업은 번역가들이 실제 어떤 관점에서 번역불가능성을 접하고 어떤 상황에서 번역의 어려움을 느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아울러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리라 생각한다. 시 한편을 실제로 번역해 나가는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는 이유는,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답과 가능한 대안을 실제 상황에서 찾아 해결해 보려는 시도이다. 번역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번역가는 어떤 태도로 이 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논문의 결론이 될 것이다.

## 2. 번역불가능성

번역불가능성은 보통 번역 회의론으로부터 시작된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권에서 새로운 독자들을 위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시에 대한 혐오감을 기른다. 그래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1874~1973)는 번역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시는 번역으로 잃게 된다.”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33)는 번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든 번역은 죽은 글이다”라 말하면서 번역문장은 “역지스럽고 나무토막 같이 딱딱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며, 번역서 도서관은 복사판 그림을 전시해 놓은 화랑과 같다”면서 번역은 가짜일 뿐이라 폄하하고, 특히 시는 번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훔볼트(55)는 한 언어에 있는 단어와 “완전히 등가성이 있는”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번역불가능성을 합리화했다. 『오비디우스의 편지』(*Ovid's Epistles*)를 번역한 시인 존 드라이든(John Dryden)은 서툰 번역에서는 훌륭한 시인도 산송장처럼 느껴지기 쉽다고 번역의 어려움을 그 「서문」에서 고백한다(23). 드라이든은 완벽한 시 번역가가 되려면 동시에 완벽한 시인이 되어야한다면 이 조건을 충분히 갖춘 번역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24)

언어학자인 로만 야콥슨 역시, 시의 경우 “당연히 번역이 불가능하다”면서 “창조적 전위”가 불가피하다고 논문 「번역의 언어학적 측면에 대하여」를 결론 지었다(151). 옥타비오 빠스(Octavio Paz)는 「번역: 문학과 문자」에서 이론적으로는 시인만이 시를 번역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시인 중엔 좋은 번역가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158). 물론 원래 ‘시를 의역한 시인 시 번역가’를 두고 한 말이지만 훌륭한 번역가를 찾을 수 없는 현실 역시 번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이다. 슐레이에허마허의 번역 태도를 이어받은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José Ortega y Gasset)는 유명한 논문 「번역의 괴로움과 영광」의 서두를 “어떤 이는 독일 철학서적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언급으로 시작한다(93-94). 오르테가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몽상적(utopian)”이라 전제한다. 어떤 것도 완전히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고 겨우 “의도”에 머물 뿐이라는 현실에서 “슬픔”을 느끼는 인간이 해야 하는 작업인 번역 역시 같은 운명이라고 말한다. 오르테가는 번역을 하려면 독자에게 외국 작품에 대한 낯섦을 경험하도록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겁하기 짝이 없는 번역가는 문법적 한계에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섬으로 원래 작가를 몰고 가 정상적 표현이라는 감옥에 가둔다.”면서 번역의 반역성을 지적한다.(94) 즉, 번역가는 도저히 번역어로는 표현 불가능한 표현을 적당히 얼버무려 자기 식대로 번역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한 표현으로 번역해, 결국 원작의 의도를 배반한다며 번역에 대한 강한 회의를 표방했다. 이들 학자들의 번역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다 버지니아 울프의 “그리스문학을 번역으로 읽는다는 건 가치 없는 일”이며 “번역가는 우리에게 모호한 등가만 제공할 뿐”<sup>1)</sup>이라는 항의까지 덧붙이지 않더라도 번역은 어느 순간 절대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1)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문학 비평 에세이 모음인 *The Common Reader* (1st Series)의 제 3장은 바로 번역불가능성을 논한 “그리스어를 모르는데 대한”(On Not Knowing Greek)이란 논문이다. 인터넷 사이트 <http://etext.library.adelaide.edu.au/w/woolf/virginia/w91c/chapter3.htm>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을 수 있다. 관련 구절 원문은 다음과 같다. “.....so clear, so hard, so intense, that to speak plainly yet fittingly without blurring the outline or clouding the depths, Greek is the only expression. **It is useless, then, to read Greek in translations. Translators can but offer us a vague equivalent; their language is necessarily full of echoes and associations.**”(굵은 부분은 필자의 것임.)

이상의 열세 학자 외에도 대부분의 전문 번역가이자 이론가들은 거의 한순간 번역불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느낀 적이 있다는 고백을 한다. “모든 것은 번역할 수 있다”고 피터 뉴마크(5)는 선언하지만 동시에 많은 긴장요인들로 인해 번역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다고 고백했다. 뉴마크는 소리와 감각 사이에 긴장, 강조해야하는 어휘순서와 문법상 자연스러움 사이의 긴장, 비유와 직설, 꼼꼼함과 과 이해도, 간결성과 정확성 사이에 긴장요인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번역은 불가능해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작가와 번역가들이 번역 불가능성을 토로했지만, 우선 이들 열네 번역비평가들의 불가능론을 크게 세 주장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장, 둘째, 불가능하긴 해도 원문을 살리는 외국화 전략으로 번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시각, 그리고 셋째, 형식까지 등가를 시켜 번역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대안으로, 내용등가를 갖춘 창조적 전이를 제안하는 주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장에 속하는 작가는 훔볼트, 울프, 드라이든, 프로스트와 빠스, 그리고 철학자 쇼펜하우어 등인데 이들은 번역을 “산송장, 죽은 글, 모조품 화랑, 상실, 모호성” 등으로 비유하고 있다. 빠스는 훌륭한 번역가가 없어서 번역의 결과물이 그렇고, 드라이든은 완벽한 번역가가 없어서라고 말하며, 울프나 훔볼트는 완전등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프로스트의 주장처럼 번역은 상실일 뿐이라는 말이다. 둘째 부류에 속하는 번역가들인 슬레이허마허, 오르테가, 퀴네, 나보코브, 그리고 뉴마크는 첫째 부류의 번역불가능 주장에 공감은 하지만, 다섯 가지 긴장요인을 극복하면서, 축자역, 즉 ‘문자 그대로’ 식의 번역은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셋째 부류는 번역불가능성을 내용등가 혹은 창조적 전위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번역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이유와 긴장요인 등으로 인해 번역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원문 특성의 상실과 불균형을 우려하고, 무모성으로 인한 원작 변형이 가장 큰 번역불가능성을 유발한다는 선학자들의 문제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번역 가능성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 3. 번역가능성 - 두 극단의 예를 통해서

#### 1) 에즈라 파운드 - 번역은 새로운 시 쓰기

시인 에즈라 파운드는 중국 이태백의 한시 18편을 멋들어지게 ‘영역’하여 단행본 *Cathay* (1915)로 엮어 서구에 중국문학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시 번역 가능성의 한 극단으로 좋은 예이다. 파운드는 동경제대 교수이던 하버드 출신 미국인 어니스트 페놀로사(Earnest Fenollosa)가 생전에 기록해둔 주석서와 모리 카이난과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교수의 음역에 가까운 해독서를 참고로 영역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영어권 독자들을 매혹시킨 파운드의 영역 한시는 엄밀히 말해서 파운드 자신이 한시에서 영감을 받아 다시 쓴 영시에 가깝지 번역이라기엔 문제가 있긴 하다. 극단적인 예로 원래 10행이던 한시(漢詩)를 파운드는 단 세행으로 옮긴 적도 있다. 같은 시를 원문에 가깝게 중국어 로마자표기법을 보완해서 ‘웨이드 가일스 중국어음역체계’를 고안해 낸 가일스(Herbert Allen Giles)가 원시에 충실히 완역한 영시 “황제를 위한 부채”(Fan piece, for her Imperial Lord)는 다음과 같다(1901: 101).

O fair white silk, fresh from the weaver's loom,  
Clear as the frost, bright as the winter snow -  
See! Friendship fashions out of thee a fan,  
Round as the round moon shines in heavens above,  
At home, abroad, a close companion thou,  
Stirring at every move the grateful gale.  
And yet I fear, ah me! That autumn chills,  
Cooling the dying summer's torrid rage,  
Will see thee laid neglected on the shelf.  
All thoughts of bygone days, like them bygone.

(\*밑줄은 필자의 것임)

그리고 동일한 한시(漢詩)를 파운드(1914: 45)는 위 번역에서 줄친 부분만 살려 다음과 같이 영어로 옮기고 있다.

O fan of white silk,  
Clear as frost on the grass-blade.  
You also are laid aside.

단 세행으로 함축한 번역, 어떻게 보면 번역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창작 시이다. 더 이상 한시(漢詩)가 아니라 오히려 하이쿠 즉 일본의 단시(短詩)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 시에서 시인번역가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몇 가지 이미지 “fan, white, silk, frost, the grass-blade”만 살려 다시 쓰고 있다. 원문에 의거해 볼 때, 부정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창작번역”이다. 번역시를 읽는 독자 수용의 관점만을 중심으로 그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번역이다. 게다가 번역가 파운드의 문학적, 사회적 위상에 의존해, 원래 시의 시적 가치를 전혀 살리지 않은 이 번역 결과물은 오히려 당대 여러 영어권 작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파운드는 동양의 고전 시를 영역하기보다는 야콥슨이 말하듯이 번역을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며 번역방법의 한 극단이라 할 수 있는 ‘번안’을 한 것이다. 물론 번역의 가능성은 번역의 기법 중 한 극단이라 할 수 있는 번안으로부터 또 다른 극단에 있는 문자대 문자 번역에까지 넓게 펼쳐있긴 하다. 그러나 인터넷 자료 “현대 만다린 중국어 로마자표기 지침 사이트를 운영하는 마크 스위포드(Mark Swofford)에 의하면 에즈라 파운드의 *Cathay*(1915)는 “번역서로 가치가 전혀 없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좋은 시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나쁜 번역이다. 파운드는 수완은 있으나 지식은 없다. 시인으로 존경 받기는 하나 번역가로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언어와 문화 장벽을 뛰어 넘어, 불가능해 보이던 중국의 한시(漢詩)를 “어떤 차원”에서건 가능하게 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위의 단 세행의 시 속에 살아있는 정서를 음미하면 10행의 정서보다 훨씬 강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파운드의 번역시를 읽으며 풀잎위에 내린 서리, 그리고 그만큼 차갑게 빛나는 하얀 비단 부채, 고이 접힌 채 누여 있는 모습 등의 이미지를 모든 영어권 독자들은 분명히 눈앞에 그렸을 테고, 낯선 중국의 정취에 잠시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맨체스터(Manchester 68)가 “단순히 단어에 집착할 경우 번역가는 원작가의 영혼을 잃는다.”고 우려한 것처럼 파운드에게 문자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번역이 중요했다. 일찍이 구이도 카발칸

티의 시를 번역하면서 파운드(1929: 33)는 시 번역가는 해설번역을 통해 새로운 시를 쓴다고 말했다. “원래 시의 열정”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원작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를 써야한다는 주장이다.

## 2) 성경 - 독자의 양해를 전제로 한 축자역

창작번역이나 해설번역 혹은 변안의 다른 쪽 극단에 있는 시 번역가능성의 예로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성경번역이 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며, 구약의 원전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원래 암송이나 독송(讀訟)을 위해 운문(韻文)으로 쓰인 원문이기며, 지금도 여전히 66권의 책을 각 장과 노래나 시를 가리키는 절(verse)로 구분하고 있다. 흔히들 성경을 소설과 같은 산문으로 착각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문학작품의 가장 원시적 모습인 시(詩) 형식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히브리 문학의 시작인 성경에 생생히 살아있다. E. V. 류(Rieu)가 소설식 산문으로 번역한 서양문학의 고전이며 고대 그리스의 가장 아름다운 문학 작품인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아』나 마틴 해먼드가 번역한 『일리아스』의 원문은 당연히 시, 특히 서사시이다. 형식과 장르를 초월한 번역가의 혁명적 산문번역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번역서 독자를 확보했지만, 이들 번역으로 인해 원래 작품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반면에 1954년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펴낸 레티모어 번역의 호메로스에서는 원래의 서사시 형식을 철저히 지킨다. 레티모어(11)는 번역서의 “서문”에서, 번역을 하며 부딪친 수많은 어렵고 해결할 길 없는 문제는 모두 “원문”을 살리는 작업으로부터 나왔으며,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으로부터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이 말은 웬지 번역에서 형식을 살리기가 의미를 살리는 작업보다 힘들다는 소리로 들린다. 레티모어의 형식에 충실한 호메로스 번역은 주로 캠퍼스에서 사랑을 받는 번역서가 되었다.

성경 역시 2천년이상 번역해 오며 원래의 시 형태는 사라졌으나, 오늘날에도 성서 번역의 제 1 원칙은 원문에 가장 가까이 번역하며 동시에 원래 형식인 “시성,” 더 나아가 음악성을 살리는 것이다. 흔히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Gospel” 혹은 “Good News”는 “복음(福音)”으로 번역하는데 여기에 “음(音)”자 역시 “소리”의 중요성을 표시하는 번역어이다(원영희 2002).



성경 번역의 원칙은 원문의 글자와 형식, 그리고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리려는 축자역지상주의라 할 수 있다. 많은 번역 성경 독자들은 번역 표현의 난해성과 고어(古語)성 등으로 비가독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번역을 해놓은 책으로 번역표현의 현대식 표현과 의미와 또한 그 의미 뒤에 숨은 의미를 연구하는 연구 인력과 성직자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숫자에 이르리라 본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출간된 서적 중, 가장 많은 출판 부수를 유지하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원문임에도 틀림이 없다. 각국의 성경과 우리나라 한역 성경은 여러 차례 개정과 개역의 과정을 거쳤으나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계시록 22:18)이란 경고에 충실한 번역을 해왔다. “원문 절대 존중” 원칙에 의거하여 번역의 극단적 축자성으로 인한 난해한 표현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한국의 경우 전 국민의 1/4 이 그 독자이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번역된 언어 수는 다른 서적과 비교 대상이 되질 않는 숫자로, 지난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무려 2,403개 언어로 번역되어있다 (대한성서공회 “뉴스 2006-03-15”).

번역가능성은 수많은 번역불가능성을 넘어 파운드의 한시(漢詩)번역의 층위로부터 역대 성서 번역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어느 원문에서나 찾을 수 있다. 파운드의 경우엔 번안의 차원을 넘어서 창작번역을 했으나 영어권 독자들은 그의 “새로운 시 창작”의 관점을 존중한 번역을 통해 한시에 매료되었다. 반면, 문자에 극히 충실히 번역해 어떤 곳은 도저히 무슨 뜻인 지 알 길이 없는 성경이지만 성서라는 특수한 원문의 권위로 인해, 원문충실 번역의 난해성을 안고도 여전히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실제 번역의 현장과 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양극단의 두 경우 모두 번역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산 증거이며 번역가들을 격려하는 결과물이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정서가 가득 담긴 시 「길손」을 영역(英譯)을 하며 돌출되는 번역불가능성의 요인이 되는 문제와 제약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해결을 통한 실천적 번역가능성의 예를 살펴본다.

#### 4. 실천적 번역 가능성 - 장만영의 「길손」 영역

길 손

장 만 영

길손이 말없이 떠나려 하고 있다.  
한 권의 조이스시집과  
한 자루의 외국제 노란 연필과  
때 묻은 몇 권의 노트와  
무수한 담배꽂초와  
덧없는 마음을 그대로  
낡은 다락방에 남겨놓고  
저녁놀 스러지듯이  
길손이 말없이 떠나려 하고 있다.

날마다 떼져 날아와 우는  
검은 새들의 시끄러운  
지저귀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의 시  
한 편 쓰지 못한 채  
그리운 벗들네게 문안편지  
한 장 내지 못한 채  
벽에 걸린 밀레의  
풍경화만 바라보며 지내던  
길손이 이제 떠나려 하고 있다.

산등너머로 사라진  
머리치네 쓴 그 아낙네처럼  
떠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영겁의 외로운 길손.  
불들 수조차 없는 길손과의  
석별을 서러워 마라.

뒹아 놓은  
회상의 은촛대에

오색 촛불 가지런히  
 꽃처럼 밝히고  
 아무 말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차거운 밤하늘로 퍼지는  
 먼 산사의 제야종소리 들으며  
 하룻밤을 뜬채 새우자.

나보코브의 말대로 모든 번역은 우선 첫제로, “사실들”에 근거해야 한다.(115) 작가의 체성, 즉, 작가의 삶과 개성, 그 시대적 상황과 특이할만한 사건, 문학적 취향, 선호하는 표현, 시의 배경, 시어의 선택, 비유의 이유 등도 알아야 번역에 실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초애(草涯) 장만영(1914~1975)은 경성제2고보(현 경북고)시절이던 1928년부터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존 밀턴의 『실락원』 등이 외국문학 번역소설을 읽으며 시를 쓰기 시작한다. 시인 김억과 사제지간의 관계를 맺고 주요한이 발행한 『동광(東光)』지를 통해 등단한 후, 일본 도쿄 미사키 영어학교에서 유학을 하며 수많은 문학서적과 외국의 서정시집을 탐독한다. 장 시인은 1975년 급성췌장염으로 타계하는 순간까지, 시 「남풍」, 「白衣天使」(문학사상)를 발표할 정도로 평생을 시작(詩作)에 바친 시인이다. 장 시인은 그의 전공과 영문학에 대한 애정으로 시 속에 영어가 자주 등장한다. 『예술월보』 제 5호에서는 「소리의 FANTASY」를, 『현대문학』73호에서는 「Bond Street」 식으로 영어 제목의 시를 기고하기도 했다. 서정적인 시 「길손」은 시인이 병상에 있을 때 출간된 생전의 마지막 시집인 제 8시집 『저녁놀 스러지듯이』(奎文閣 간, 1973)에 실렸는데, 이 시의 1연 8행이 시집의 제목이 되었다(장만영 II, xv).

시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어, 아일랜드 작가의 이름, 외래어 등으로 어휘적 관점에서 이 시의 영역 가능성은 아주 높다. 그러나 동시에 “길손, 스러지듯, 산등너머, 머리치네, 아낙네, 영겁, 제야종소리” 등의 한국적 정취가 가득 담긴 어휘로 번역불가능성이 동시에 고개를 든다.

둘째로, 같은 어휘적 관점에서, 특히 고유어 번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에 사용된 많은 고유어 중에 예를 들면, “먼 길을 가는 나그네”라는 의미의 제목인 ‘길손’을 옮길 정확한 영어단어는 사실상 없다. 가장 가능한 번역어를 “wayfarer, estranger, traveler” 등의 세 단어로 좁혔으나 실제로 이 세 단어를

포괄하는 의미가 ‘길손’에는 있기에 어느 하나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번역가는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야말로 “Lost in translation”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원제의 “길”의 뜻을 담고 있는 “wayfarer”를 선택한다. 다음은 “저녁놀 스러지듯이”의 “스러지듯이”를 번역하는 문제이다. “스러지듯이”는 형체나 현상이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의미를 알기에 자연스레 나오는 영어어휘를 잠시 뒤로 밀어두고 한영사전들을 살펴보자.

1. 인터넷 사전

disappear 사라지다 스러지다 ⇒ (네이버)

스러지다 → 사라지다.(야후)

스러지다 disappear ⇒ 사라지다 (다음)

2. 전자사전

항목 없음. (『동아 프라임 한영사전』, SHARP PW-5000D)

3. 종이 사전

항목 없음. (『뉴월드 콘사이스 韓英辭典』(시사영어사, 1990))

고유어 “스러지듯이”의 영역을 위해 번역가지망생이 도움을 구할 영한사전에는 결국 설명이나 번역어가 안나온다는 결론이다. 오늘 날 우리나라 사전에 편재한 사례에 중의 하나이다. “스러지듯이”이란 단순히 사라진다는 의미의 “disappear”과는 거리가 있기에 영상언어인 “fade”에서 답을 구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산등너머, 머리처네, 아낙네, 영겁, 제야종소리”는 각각 “beyond the hill, head-covered muffler, a lady, eternally, a watch-night bell”로 옮겨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번역을 해야 한다. 파운드가 얘기하는 말의 무게의 등가는 어렵다. 고유어일수록 문화적 특성이 강하고 다른 언어에는 동일한 표현이나 어휘가 없기에 말이 주는 멋이나 맛을 살리지는 못해 많은 번역기는 ‘어휘적’층 위에서 번역불가능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위기를 맞는다.

특히 “산등너머”의 경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beyond the ridge of a mountain”이지만, 전체 시 속에서 산 너머로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사라져버린 여인을 빗대어 표현하기에 너무 길다. 그래서 “mountain”만 살려 “beyond the mountain”이라 번역한다.

시골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머리에 쓴 자주색 다소 길이가 긴 모자와 같은 형질을 가리키는 “머리처네”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그 원래의 특징과 색을 충실히 살려 “a head-covered purple muffler”로 옮긴다.

역시 고유어인 “아낙네”도 단순히 “woman”이라 일반화해 번역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어 “lady”로 대신하고 “그 아낙네”와 등가를 맞추기 위해 정관사 “the”를 붙인다.

영원한 세월을 뜻하는 “영겁(永劫)”은 힌두교·불교용어인데, 우주의 생성과 멸망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 겁(法) 즉, “칼파”(a kalpa)에서 나온 말이다. 쉽게 “an (a)eon; an eternity; perpetuity; long ages; Kalpa” 등의 어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시 번역에서는 단어의 선택이 다른 장르에서보다 특히 중요하므로 전체 서정적·시적(詩的) 분위기를 가장 살려 줄 수 있는 어휘에 형식적 전환을 가해 번역할 수밖에 없다. “영겁의 외로운 길손은” 그래서 “the eternally lonely wayfarer”로 번역한다.

글자 그대로 밤을 깨운다는 한자 ‘除夜’와 함해 복합명사화한 ‘제야중소리’는 산속의 사찰에서 새벽 3시 예불을 위해 울리는 종소리이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곤히 잠든 새벽 3시에 한밤중에 밤을 깨우는 종소리를 영어권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지식 없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서일 것이다. 따라서 번역의 외국화와 국내화 전략 사이의 갈등을 겪으며 번역가는 “the watch-night bell”과 “the daybreak bell”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한다.

셋째로, 시 번역가는 가능한 시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발터 벤야민(76)의 말대로 번역은 “형식”이다. 그리고 번역을 형식으로 이해하려면 원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전통적 서정시 형식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악성, 간결성, 비유와 도치, 반복 등이 있다. 통사적 문체적 등가를 지키며 이런 시적 특성을 번역에 살려 번역을 완성하면 된다. 불가능해보이기만 하던 원문은 서서히 녹아 걸모습은 비슷하지만 내용의 구조는 전혀 다르고, 의미는 동일한 번역문으로 새로 태어난다.

#### The Wayfarer

The wayfarer is about to leave without a word.

One book of Joyce's poems,  
An yellow pencil, foreign-made,  
Several notebooks, well-stained,  
Countless cigarette ends,  
And an evanescent heart, still  
Leaving behind at the old and shabby attic,  
As the sunset fades away  
The wayfarer is about to leave without a word.

Even the blackbirds noisily chirped,  
Flying into and tweeting together day after day,  
One poem about the beautiful rose  
He wrote not  
Even one greeting letter to friends, longing for,  
He mailed not,  
Staying and only watching Millet's landscape painting,  
Hanging on the wall,  
The wayfarer is now  
About to leave.

As the lady disappeared beyond the mountain,  
Who wore a head-covered muffler,  
The eternally lonely wayfarer  
would never return after his leaving away.  
Don't be sorrowful at this parting from  
The wayfarer whom you never could hold back

In well-wiped  
Silver candlesticks of reminiscence  
There are five colors of candle neatly.  
Light them like flowers.

Do not say a word nor think.



Listening to a watch-night bell, ringing from a temple in a distant mountain,  
Spreading up away in a cold night sky,  
Stay up all night over.

축자역주의자인 발터 벤야민(76)은 어떤 작품도 근본적으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본문의 특성이 곧 번역가능성을 명시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어떤 언어들 사이에도 친족성(kinship)이 있기에 번역은 또 한번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며 벤야민(79)은, 그러나, 번역문 속에서 원문의 매아리가 들려야 한다고 전제한다. 번역가들과 번역이론가들은 수세기에 걸쳐 무게를 두어야 하는 쪽이 ‘원문이나? 번역문이나?’를 놓고 논쟁을 해 왔다. 비 정전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정전화한 고전문학을 번역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원문을 무시한 번역은 표절과 같은 범죄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이 전적으로 지켜진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번역을 창작의 과정으로 보았으니까. 실제로 번역해야 하는 원문을 족쇄로 보기보다는 완전히 이해하여 번역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번역해 왔다. 사이덴스티커가 일본문화에 애정을 느껴 번역을 시작하고, 일본문화에 탐닉하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을 번역했던 것처럼, 번역은 언쟁의 대상이 아니라 타문화의 수용과 이해를 통한 사랑의 대상이다. 실제로 번역을 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쪽은 꼭 ‘전통’만도, ‘기호’만도 아니다. 문제는 ‘변형’의 ‘정도’이다. 원문의 감동이 사라질 정도의 축자역은 주의하면서 원문을 번역문 표현의 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정도의 변형은 용납을 해야 한다. 르페브르의 시 번역을 위한 7가지 청사진도 한쪽을 고집한 번역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나열한 번역 방법에 대한 이론이며, 세이보리의 12가지 번역원칙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가 모든 번역가능성을 다 수용하는 자세로 번역원칙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손」 영역은 보들레르(Salines 23)가 에드거 알렌 포의 시 번역을 하며 취한 자세인 ‘번역을 창작의 도구’로 전제하면서 ‘원문을 최대 존중하는’ 방법에 의존해 나온 결과물이다.

## 5. 나가며 – 번역가능성과 번역이론

안소니 펴와 홀스트 터크(273)는 번역가능성을 “대부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기 위한 어떤 의미의 정도”로 정의한다. “어느 정도의 의미만 옮긴다”는 위험부담에 대한 일종의 변명으로 “지나친 변화 없이”를 조건으로 들면서 두 학자(274)는 번역은 합리적, 상대적, 낙관적 등 세 가지 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즉, 의미의 보편성, 사고와 언행의 상대성, 언어의 해석학적 호환성 등의 측면에서 번역은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원문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완벽히 등가성이 있는 번역을 할 수는 없기에, 번역에는 “희생필수의 원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번역이론이란 바로 번역 작업을 할 때 마주치는 문제를 토론의 탁자에 올려놓고 그 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술이다. 번역의 과정 중에서 의도적으로 ‘희생’한 경우가 아니라 원작의 의도나 번역가의 의도와는 달리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고, 또 상실을 미리 막기 위해 번역이론은 필요하다. 피터 뉴마크(9)는 번역 이론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번역이론은 우선 번역문제를 밝히고 정의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이론도 없을 테니까. 둘째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시하기 위해 서이다. 셋째로 가능한 모든 번역과정을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적합한 번역방법과 아울러 적절한 번역을 제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뉴마크 선생의 말대로 번역이론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 “가장 적합한” 번역 방법을 제안하는 장이며 아울러 가장 적절한 번역 결과를 추천하기 위한 논리적 토론의 장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표현을 찾아낸 과정을 기술하고, 직접 그 결과물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이 바로 번역이론이다. 번역이론에 관한 논문은, 그러므로, 당연히 번역을 하며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 관한 실무적 접근이 필수이긴 하다. 그러나 실무적 접근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언어적, 문학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심미적, 철학적, 논리적, 교육학적, 여성적, 문예창작적 접근 등등의 모든 학문분야와 관련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 번역이론은 역동적 학제성이 그 특성이기에, 더 이



상 외로운 섬나라의 낯선 이론이 아니며, 그 존재에 관한 유아적 수준의 의혹에서 탈피해야 한다. 게다가 번역의 장인(丈人)들의 기술을 전할 길은 도제식 훈련만으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렵고, 1대 다수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감안할 때, 다양한 이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론을 통한 번역가능성의 정도도 높일 수 있다. 한국 내 번역학과 번역이론 형성과정은 김정우(2005)의 주장대로 “번역학의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표출되는 논의의 장”인 『번역학 연구』(2000년 1권 1호~2005년 6권 2호)에 마땅히 그 공헌을 돌려야 한다. 번역학회와 학회지는 한국번역출판계의 고질적 수준 낮은 번역 출판 관행을 막는 지킴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해내어, 번역서의 그릇된 정보로 학습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 충실히 번역하여 신뢰성이 있는 많은 번역가를 교육해낼 책임이 있다.

장 보아스 바이어와 마이클 홀먼(13)은 번역 과정에서 부딪치는 여러 종류의 ‘제약’, 혹은 문제들은 실제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적극적인 번역가능성을 표명한 학자들의 일례이다. 이들은 번역, 차용, 번안 등의 창의적 행위로 인해 모국어는 ‘영원히’ 변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번역의 사회·언어적,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웠다(15). 사실 그렇다. 1611년에 번역 출간된 영어성경 『제임스 왕 역』은 그 이전까지 모든 영어의 구습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며 수백 년간 그 영예로운 권좌를 지켰고, 1911년에 출간된 최초의 한국어 역 성경 『구약』역시 근·현대 한국어 정착과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 표현 중에 “누가 이 사건의 십자가를 질래?” 혹은 야구의 “구원투수,” “천사 같은 여인이여!,” “정원이 에덴동산처럼 아름답네!” 등등, 이전에는 없던 어휘들이 점차 우리말의 중요한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처음에는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제약으로 번역 불가능성을 야기하던 어휘들이었으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풍요에 기여를 하는 어휘들이 되었고, 번역가능성을 높이는 말들이 되었다.

“모든 것은 번역할 수 있다”고 장담한 호세 오르테가(1883-1955) 논문의 제목 「번역의 괴로움과 영광」처럼 사실 시 번역을 비롯한 모든 번역엔 ‘괴로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제약이 있다. 본문에 대한 제약은 물론 작가의 특성과 작품의 정전성, 그리고 최후엔 독자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약이 있다. 마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편리한’ 규범처럼 번역에도 역시 이율배반적

인 모순처럼 제약이 있다. 수많은 작가와 시인들이 주저 없이 번역불가능성을 피력한 이유도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제약들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제약이라는 규범을 통해 스스로의 경계를 한정지은 번역가는 오히려 편리함을 누리며 번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 형식이라는 한층 더 심한 제약으로 인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괴로운’ 번역불가능성일지라도 실력 있는 시 번역가의 창의성 발휘에 힘입어 ‘영광스런’ 번역가능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심화된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기에 번역가는 괴로움과 영광을 동시에 살게 되는 것이다.

번역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번역가는 어떤 태도로 이 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즉, 번역가는 아무리 원문의 번역불가능성이 두드러지더라도 번역가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한, 번역을 해 내야만 한다. 그것도 더글러스 로빈슨의 말처럼 아주 “믿을 만하게” 말이다.

### 참고문헌

- 김재현. 1995/2000. 『번역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 연구』제 6권 2호.
-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 \_\_\_\_\_. 2006-03-15. 「대한성서공회 “뉴스”」.
- 원영희. 2002. 『한역성경표현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 \_\_\_\_\_. 2003. 『원영희 교수의 일급번역교실』 서울: 한언출판사.
- 장만영. 2005. 『장만영 전집I·II』 서울: 도서출판 글나래.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_\_\_\_\_.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rnstone, Willis. 1993. *The Poetics of Translation: History, Theory, Practi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 Bassnett-McGuire. 1980.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Mathuen & Co. Ltd.
- Bell, Roger 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Longman Group Ltd.
- Catford, J.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P.
- Gentzler, Edwin. 1993.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ryden, John. 1680/1992. "On Translation," eds. Schulte, Rainer & Biguenet, John.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The U of Chicago P.
- Giles, Herbert Allen. 1901. *A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London: Heinemann.
- Hammond, Martin. trans. 1987. *Homer: The Iliad*. Penguin Books.
- Holman, Michael and Boase-Beier, Jean. 1999. "Writing, rewriting and Translation Through Constraint to Creativity," in *The Practices of Literary Translation: Constraints and Creativity*, edited by Jean Boase-Beier and Michael Holman.
- Humboldt, Wilhelm. 1816/1992. "Introduction to His translation of Agamemnon". eds. Schulte, Rainer & Biguenet, John.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The U of Chicago P.
- Jacobsen, Eric. 1958. *Translation: A Traditional Craft*. Copenhagen: Glydendale.
- Jakobson, Roman. 1959/1992.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eds. Schulte, Rainer & Biguenet, John.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The U of Chicago P.
- Lattimore, Richmond. trans. 1951/1973. *The Iliad Homer*. Chicago & London: The U of Chicago P.
- Manchester, P. T. 1951. "Verse Translation as an Interpretive Art," *Hispania* 34: 68-73.
- Nabokove, Vladimir. 1955/2004. "Problems of Translation: ONEGIN English," ed. L. 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Newmark, Peter. 1988/1998. *Textbook of Translation*. Oxford: Pergamon Press.
-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 Ortega y Gasset, Jose. 1937/1992. "The Misery and the Splendor of Translation," in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edited by Schulte, Rainer & Biguenet, John. The U of Chicago P.
- Paz, Octavio. 1971/1992. "Translation: Literature and Letters," Eds. Schulte, Rainer & Biguenet, John.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The U of Chicago P.
- Pound, Ezra. ed. 1914. *Des Imagistes*. New York: Boni.
- \_\_\_\_\_. trans. 1915. *Cathay*. London: Elkin Mathews.
- \_\_\_\_\_. 1929. "Guido's Relations," ed. L. 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_\_\_\_\_. 1954. *Literary Essays*. New York: New Directions, and London: Faber and Faber.
- Pym, Anthony, and Turk, Horst. 1998. "Translatability," ed. Mona Baker.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ieu, E.V. trans. 1946. *Homer: The Odyssey*. Penguin Books.
- Robinson, Douglas. 1997. *Becoming a Translator: An Accelerated Course*, ed. by L. Venuti.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avory, Theodore. 1957. *The Art of Translation*. London: Jonathan Cape Thirty Behold Square.
- Salines, Emily. 1999. "Baudelaire and the Alchemy of Translation," eds. Jean Boase-Beier and Michael Holman. *The Practices of Literary Translation: Constraints and Creativity*,
- Schulte, Rainer & Biguenet, John. ed. 1992.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The U of Chicago P.

- Schopenhauer, Arthur. 1800/1992. "On Language and Words,"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The U of Chicago P.
- Swofford, Mark. "Fenollosa, Pound and the Chinese Character," *Guide to the Writing of Mandarin Chinese in Romanization*, <http://www.pinyin.info>.
-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ranslation Theory*. Tel Aviv: Porter Institute.
- \_\_\_\_\_. 2005. *Translation and Cultural Chang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Venuti, Lawrence. ed. 2000/2004.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alter, Benjamin. 1930/2004. "The Task of the Translator: An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of Baudelaire's *Tableaux Parisiens*," ed. L. 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Wilson, Peter. 2004. "Cathay" in *The Literary Encyclopedia*. London: Metropolitan U.

<http://etext.library.adelaide.edu.au/w/woolf/virginia/w91c/chapter3.html>

<http://www.pinyin.info>

<http://www.litencyc.com/php/sworks.php?rec=true&UID=8993>

<http://www.bskorea.or.kr/>

K C I

[Abstract]

**Translatability and Untranslatability:  
Focused on Translating Poetry**

Won, Young Hee  
(Sung Kyun Kwan University)

Whenever translators meet the most 'original' source texts, they might immediately think 'untranslatability', since the impossibility of translation is commonly increased by the broad differences or a gap between two languages and cultures. It naturally accompanied with the sense of untranslatability just as the poet Frost talks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ways of overcoming various impossibility in translation, focusing on poetry translation. To achieve this goal, we compare the bipolar attitudes in translation, and summarize fourteen translators' and writers' view on the untranslatability or translatability. Fourteen writers' skeptical and negative or extreme creative attitudes towards the translation or translating poetr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First group insist that a perfect equivalence is impossible in translation, second group suggest extreme literal translation, and the third present a creative translation as the alternative.

Ezra Pound translated Chinese poetry into the new English poems in his peculiar method of the creative translation. The Holy Bible, which originally written in verse, has to have always been translated in a literal way. These bipolar methods suggest everything in-between is translatable. Ironically each translator, who complains untranslatability, eventually presents the way out of it. That is, while studying over their sense of impossibility, they simultaneously

return to the way out of it.

One Korean poem, 'The Wayfarer', in Korean 'Gil Son', is analyzed and translated into English. Through this job, it was proved that problems in translation arise from mostly culturally different words and expressions, and they can still be translated with some degree of adjustment. As Pym assumes that they need to admit "the principle of necessary sacrifice" and to be ready to lose "less important" elements in the original text to achieve better communication without losing the whole taste. Poetic notion and diction, musicality, repetition, anastrophe, and metaphor of the original poem are main sources of leading translators into the swamp of untranslatability. And the constraint, the very sense of untranslatability, therefore, can be overcome by the translator's creativity as Jose Ortega y Gasset says "The Misery and the Splendor of Translation" coexist in this land.

▶Key Words: translatability, untranslatability, poetry translation, Ezra Pound, Bible translation, Homeros, dynamic equivalence

원영희

성균관대학교 번역·테솔대학원 번역학과 대우교수

관심분야: 번역학, 시, 기독교문학

연락처: kstella@skku.edu

논문투고일: 2006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8일